

중국과 일본의 청년고용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우리와 여러모로 유사한 측면이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널리 활용되어 온 방식이다. 물론 법적 인프라, 정치제도, 경제발전 단계, 사회문화적 특성 등 모든 면에서 우리와 완벽하게 닮은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사회문화적 특성에 있어 동아시아 전통문화의 영향이 크다는 공통점을 감안할 때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참조할 만하다.

청년고용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발전 단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이다. 그럼에도 어떤 문제로 인해 청년고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고, 설령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를 교정할 방안을 내어 놓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차별화되는 경제발전 단계 및 경제상황을 겪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으로 대표되는 국가 전체의 경제력은 이미 세계 1위 수준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 기준으로는 아직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기존의 투자 및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소비 위주로 전환하면서, 청년층을 포함하여 일자리 창출의 주된 초점이 변모하는 단계에 있다. 다만 최근 다소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청년층 구직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먼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오랫동안 장기 불황에 시달리던 차에, 최근 몇 년간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적극 추진 및 구조개혁 시도 등을 통해 경제가 급격히 살아나면서 노동시장에 완전한 온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청년층 구직자들에게도 긍정적인 환경변화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의 경우 청년고용 환경에 있어 우리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호 기획특집으로 소개하는 중국의 명쉬뎬 박사(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와 일본의 고스키 네이코 박사(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원고는 중국과 일본에서 여전히 청년고용이 쉽지 않은 사회경제적 이슈로 남아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의 글은 2017년 11월 17일 청년고용을 주제로 도쿄에서 개최된 제15차 동북아노동포럼 제1세션에서 발표된 바 있다.

우선 중국의 명쉬뎬 박사는 중국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독자들은 중국 청년고용 관련 사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고스키 네이코 박사는 일본 청년층이 처한 취업 관련 현황과 문제점, 기업의 채용 및 인재육성 관행, 일본 정부의 정책 대응 현황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역시 독자들의 일본 청년고용 관련 이해 증진을 위해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소개된 중국과 일본의 사례로부터 설령 한국의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 두 나라의 사례를 들여다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명쉬뎬 박사의 원고에 제시된 중국의 청년 혁신창업 지원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 대해 세 국가의 연구자들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 중국의 혁신창업 장려정책 중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물론 중요할 것이다.

다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훨씬 먼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일본조차 자국 청년들의 혁신창업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있어 크게 고전하고 있으며, 일본의 연구자들이 2017년 동북아노동포럼 토론 과정에서 피력했듯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연구

자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 공유는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각국의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제 비교를 통한 국내 정책방안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그 엄밀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상당히 많은 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회귀분석(cross-country regression)의 방식으로 주요 변수를 통제하고 분석하더라도 그 한계가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동북아시아의 이웃 국가 두 곳의 사례를 보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정책 시사점 도출이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치열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중국과 일본의 청년고용 현황을 들여다보는 것이 충분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ILU**